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헝가리

Republic of Hungary

2023년 8월 31일 | 선임조사역(G2) 황수영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93천 km ² 	인구 973만 명 (2022) 	정치체제 내각책임제 	대외정책 실리위주 외교정책 
GDP 1,683억 달러 (2022) 	1인당GDP 17,301달러 (2022) 	통화단위 Forint(Ft) 	환율(U\$기준) 372.60 (2022) 

- 헝가리는 중부 유럽 내륙국으로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슬로바키아, 세르비아와 국경을 접하여 동-서 유럽을 잇는 지정학적 이점을 보유하고 있음.
- 1989년 체제 전환 이후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등을 통해 자본주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성공하였으며, 자동차 전기·전자 등 제조업 기반의 수출지향 경제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 2022년 4월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우파 피데스당(FIDESZ, 청년민주동맹)이 135석을 차지(득표율 53.29%)하여 56석에 그친 야권연합을 누르고 승리하는 등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상당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 2010년 이후 장기 집권 중임.
- 헝가리는 EU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며 중부유럽 지역협의체(비셰그라드) 구성원으로서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와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러시아 및 중국과의 관계도 강화하면서 실리 위주의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오르반 행정부의 사법부 독립성 훼손, 인권 침해, 언론탄압 등의 문제로 EU와 갈등을 빚고 있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89. 2. 1 (북한과는 1948. 11. 11)

주요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90), 사증면제협정('91),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95), 경제협력협정('05), 사회보장협정('07), 취업관광프로그램협정('13), 원자력평화적이용협정('14), 운전면허증상호인정협정('15), 항공업무협정('15), 군사비밀정보교환협정('16)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20	2021	2022	주요품목
수출	2,926,395	4,051,512	6,162,873	전자제품, 수송기계, 석유화학제품
수입	678,045	749,644	795,682	축산물, 전자제품, 수송기계

해외직접투자현황(2023년 3월말) 263건 4,691백만 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f
경제성장률	4.9	-4.6	7.1	4.9	0.5
소비자물가상승률	3.4	3.3	5.1	14.5	17.7
재정수지/GDP	-2.0	-7.5	-7.1	-6.1	-3.9

자료: IMF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국내수요 위축 등으로 전년(4.9%) 대비 크게 하락한 0.5%로 전망

- 코로나19 사태 이후 강한 회복세를 보이던 경제성장률이 금년에는 금리상승, 높은 인플레이션 등으로 국내수요가 위축되어 0.5%에 그칠 전망이다(IMF).
- 최대 교역 파트너인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경기 둔화 및 성장률 저하 전망(2023년과 2024년에 각각 0.8%, 1.3% 예상)에 따라 헝가리 경제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 헝가리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인한 높은 인플레이션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축소하여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나, 최근의 포린트화 환율 상승세, 공공부채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정책 선택의 폭은 크지 않은 편임.

* GDP 대비 공공부채(%) : 72.2('17) → 69.2('18) → 65.5('19) → 79.3('20) → 76.8('21) → 73.5('22)

* 포린트화 환율(US\$ 대비) : 297.36('20) → 325.71('21) → 375.68('22) → 349.85('23.3월) → 349.14('23.7월)

소비자물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2022년에 14.5% 급등하였고, 금년에도 17.7% 상승할 전망

- 2023년의 17.7% 소비자물가상승 전망은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급등, 농산물 수출국의 수출 제한 조치 등에 따른 식품 가격 상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유가 불안 등 때문임.
- 헝가리 중앙은행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시장에 공급한 유동성을 회수하고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2021년 6월 0.9%에서 수 차례에 걸쳐 2022년 9월 13.0%까지 인상하여 2023년 8월 말 현재 동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헝가리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2023년) : IMF 17.7%, EIU 17.3%, IHS Markit 17.9%

재정수지는 2020~22년 중 GDP 대비 평균 -6.9% 적자였으며 금년에도 -3.9% 적자 전망

- 헝가리의 재정수지 적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GDP 대비 -2.0%대 초반을 유지하였으나, 코로나 사태 이후 재정지출 증가 등으로 동 비중이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7.5%, -7.1%로 상승하였으며 2022년에도 -6.1%를 기록하였음. 금년에는 정부의 긴축 기조로 동 비율이 -3.9%로 낮아질 전망이다.
- 금년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에 대한 기관별 전망치는 IMF -3.9%, EIU -4.3%, IHS Markit -4.8% 등으로 헝가리 정부의 목표치인 -3.4%를 상회하고 있음.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f
경 상 수 지	-1,230	-1,617	-6,961	-14,292	-7,109
경상수지/GDP	-0.8	-1.0	-3.8	-8.5	-3.8
상 품 수 지	-4,099	-1,477	-5,116	-15,570	-7,958
상 품 수 출	103,618	101,421	119,362	130,866	145,604
상 품 수 입	107,717	102,899	124,478	146,436	153,562
외 환 보 유 액	29,873	38,999	34,927	32,842	35,178
총 외 채	159,867	254,941	261,297	268,520	287,218
총외채잔액/GDP	97.5	162.2	143.7	159.6	152.4
D.S.R.	48.0	55.2	78.2	74.0	67.2

자료: IMF, EIU

경상수지는 2019년 이후 적자 기조이며 2022년에도 GDP 대비 -8.5%의 적자를 기록하였고, 금년에는 국내소비 위축으로 인한 수입 증가세 둔화 등으로 동 비중이 -3.8%로 낮아질 전망

- 헝가리는 자동차를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 분야 수출에 기반한 상품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해 왔으나, 2019년 이후 주요 수출시장인 EU의 경기 침체,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경상수지가 적자 전환하였음.
- 2020년과 2021년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제 공급망 교란, 관광 산업 위축 등으로 상품수지가 적자를 보이면서 경상수지도 GDP 대비 각각 -1.0% 및 -3.8%의 적자를 기록하였음.
- 2022년에는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 폭이 더욱 증가하여 GDP 대비 비중이 -8.5%까지 확대되었음. 금년에는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소비 위축 등으로 상품수지 적자가 전년 대비 48.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도 -3.8%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EIU).
- 헝가리 GDP의 약 7~8%를 점유하는 관광 부문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서비스수지가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58억 달러 및 84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고, 금년에도 101억 달러 규모의 흑자가 예상됨.
- EU 경기침체, 유가 상승 등으로 상품수지 적자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EU의 경기 회복이 예상되는 2024년 이후 수출 호조 등으로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가 점차 개선될 전망임(EIU).

외채상환능력

단기외채상환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외채상환 위기 발생 시 EU 차원의 금융지원이 가능

- 총외채잔액의 GDP 대비 비율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나(2016년 말 114.3% → 2018년 말 96.6%),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GDP 규모가 감소하면서 동년 말 162.2%로 급등하였음. 2021년에는 경기 회복으로 동 비율이 143.7%로 낮아졌으나, 2022년에 159.5%로 다시 상승하였고 금년에도 152.4%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외환보유액은 2016~19년 기간 중 월평균수입액의 3개월분에 미달하였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상품수입이 감소하여 3.4개월분으로 일시 반등하였으나, 2021년과 2022년에 상품수입액이 증가하면서 각각 2.4개월분 및 2.0개월분으로 하락하였고, 금년에도 2.0개월분으로 전망됨.
- D.S.R.도 2016년 이후 40%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78.2% 및 74.0%로 급등하였고, 금년에도 67.2% 수준으로 전망되는 등 단기외채상환위험이 높은 편임.
- 다만, 헝가리는 EU 회원국으로서 외채상환 위기 발생 시 EU 차원의 금융지원을 통한 안정화가 가능하다는 이점을 지니고 있음.

구조적취약성

외국인투자에 기반한 기계류, 전기·전자, 자동차 등 제조업 중심의 경제 및 산업구조

- 헝가리는 1989년 체제전환 이후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형성함. 이는 제조업 분야 다국적기업들이 중부 유럽에 위치한 지정학적 이점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금수준을 보유한 헝가리를 생산 거점으로 삼아 EU 지역으로 수출하는 분업 생산구조에 기인함.
- 헝가리의 주요 기업은 대부분 외국자본이 소유하고 있으며, 헝가리 내수시장보다는 유럽 시장을 겨냥한 생산기지 운영을 위해 헝가리에 진출하고 있음.
- 헝가리의 산업구조는 HS Code 분류상의 제85류(전기·전자), 제87류(일반차량) 및 제84류(보일러·기계류)의 3대 품목이 작년 전체 상품수출의 54.2%를 점유하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음.

* 상품수출의 품목별 비중(2022년) : 전기·전자 25.1%, 일반차량 14.7%, 보일러·기계류 14.4%

수출 및 EU 역내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로 외부충격에 취약

- 헝가리 경제는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입이 GDP의 160% 이상을 차지하는 소규모 개방경제로, 원유 등 주요 원자재의 국제가격 변동, 교역상대국의 경기침체 등 외부충격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음.
- 2022년 기준 세계 194개국 중 헝가리의 1인당 GDP는 53위이며, GDP 규모는 56위로 동아시아의 소규모 경제인 싱가포르(36위), 홍콩(42위) 등보다 작은 수준임.
- 대부분의 EU 회원국들과 마찬가지로 헝가리도 수출과 외국인투자의 원천이 EU 역내 비중이 높아 경제성장, 경상수지, 외국인투자 유입액 등이 EU 및 유로존의 경기변동에 크게 좌우됨(표1 참조).
- 헝가리의 2022년 상품무역에서 유럽은 상품수출액의 87.1%, 상품수입액의 80.0%를 점유하고 있음.

[표 1] 헝가리, EU 및 유로존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헝가리	3.7	2.2	4.3	5.4	4.8	-4.5	7.1	4.9
EU	2.5	2.0	3.0	2.3	2.0	-5.6	5.6	3.7
유로존	2.0	1.9	2.6	1.8	1.6	-6.1	5.4	3.5

자료: IMF

내륙국(landlocked)이라는 지리적 입지는 국제무역 외연 확장에 한계

- 헝가리는 바다에 접하지 않은 내륙국으로서 해운을 통한 상품무역의 경우 주변국의 항만에 의존하고 있음. 이는 미주, 아시아 등지로의 수출시장 개척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으며 EU 국가들과의 교역에 더욱 치중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교역국 다변화에 한계가 있음.

성장잠재력

유럽 중앙부에 위치한 지정학적 이점 및 고속련 저임금의 인적자원을 보유

- 헝가리는 구소련 붕괴와 냉전 종식에 따른 체제 전환 이후 개방적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성공하여 양질의 인프라와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EU 회원국으로서 EU 역내의 상품 및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시장을 확보하고 있음.
- 지리적으로 7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동유럽과 서유럽에서 모두 접근성이 뛰어난 중-동부 유럽의 중심에 위치한 지정학적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EU 역내의 생산 및 물류기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헝가리의 고속련 저임금 노동력에 주목한 다국적기업들이 유럽 지역을 관할하는 서비스공유센터(SSC) 또는 R&D 센터를 헝가리에 설립, 운영하고 있음.
- OECD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헝가리의 1인당 연평균 임금(28,475달러)은 OECD 38개 회원국 중 34위이고 유럽 지역 26개 OECD 회원국 중에서는 24위 수준임. 인접국이자 역시 체제 전환국가인 슬로베니아(47,240달러), 폴란드(36,897달러), 체코(33,476달러)는 1인당 평균임금이 헝가리보다 높음.
- 2008-09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BP, IBM, Vodafone 등 다국적기업들은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서비스센터를 헝가리로 이전하였고, Bosch, GE 등도 R&D 센터를 헝가리에 설치하였음.

외국으로의 두뇌 유출(brain drain)과 고령화, 출산율 하락 등에 따른 인구 감소는 중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과 경제성장에 주요 위협요인

- 냉전 종식과 체제 전환 이후 계속된 서유럽으로의 인력 유출은 2004년 헝가리의 EU 가입으로 더욱 가속화되어, 2008~18년 중 100만 명 이상이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 외국(주로 EU 회원국)으로 이주한 것으로 집계됨. 65세 인구 비중도 2022년에 22%에서 2050년 28%로 높아질 전망이다(EIU).
- 헝가리의 출산율은 2016~19년 기간 중 1.49 수준을 유지하였고 2020년에 1.52로 상승하였으나, 인접국가인 체코(1.71) 및 슬로베니아(1.60)보다 낮은 수준임. 헝가리 정부는 자국 내 부부 중 20% 이상이 불임 문제를 안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음.
- 지속적인 인구 감소(2003년 1,014만 명 → 2022년 972만 명 → 2050년 850만 명으로 예상)로 노동가능인구 비중이 2022년 64.6%에서 2050년 58.0%로 감소할 전망이다. 향후 노동력 부족이 제조업 경쟁력에 큰 위협요인으로 이에 헝가리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2020년 2월부터 시험관아기 시술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음.

정책성과

EU 기금을 재원으로 한 중장기 경제성장 계획을 추진한 결과 2014~19년 유럽 신흥국보다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였고 이후에도 비교적 양호한 경제성장률 유지

- 헝가리 정부는 고용, 혁신, 교육, 사회통합, 기후-에너지의 5개 분야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EU의 성장 전략인 'Europe 2020'에 대응하여 중장기 성장전략인 'Szechenyi 2020'을 수립, 2014~20년 기간 중 배정받은 EU 기금¹⁾(219억 유로) 포함 총 257억 유로의 예산을 경제개발, 도시·교통개발, 환경에너지 등에 투자하여 2014~19년의 6년 동안 평균 4.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여 유럽 신흥국 대비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였고 2021~22년 중에도 평균 6.0%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시현하였음.

[표 2] 헝가리 및 유럽 신흥국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헝가리	4.2	3.7	2.2	4.3	5.4	4.8	-4.5	7.1	4.9
유럽 신흥국	1.9	1.0	1.7	4.2	3.6	2.5	-1.6	7.3	0.8

자료: IMF

외국인투자예 개방적인 정책 기조로 핵심 산업 부문에 외국인투자 유입 지속

- 헝가리는 외국인투자(특히 제조업 부문)에 개방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법인세율이 2017년 이후 9%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몬테네그로와 더불어 유럽 내 최저 수준으로서 외국인투자 유치에 매우 유리한 조건임. 따라서 자동차, 전기·전자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 자금 유입이 활발함.
 - * 헝가리에 대한 FDI 유입액(억 달러) : 64.6 ('18) → 43.3 ('19) → 68.0 ('20) → 54.6 ('21)
- 2022년 기준 유럽 국가 중 법인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몰타(35%)이고 포르투갈(31.5%), 프랑스(25.8%)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으며, 헝가리 주변국의 경우 오스트리아(25%), 슬로바키아(21%), 폴란드, 체코, 슬로베니아(각각 19%), 크로아티아(18%) 모두 헝가리보다 높은 수준임(Tax Foundation).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헝가리는 64개국 중 46위로 전년 대비 7단계 하락

- 스위스 국제개발경영대학원(IMD)이 발표한 2023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헝가리는 평가대상 64개국 중 46위를 기록하여 국가경쟁력이 전년 대비 7단계 하락함.
 - * 순위 변화 : 47위(2019년) → 47위(2020년) → 42위(2021년) → 39위(2022년) → 46위(2023년)
-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는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의 총 4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함. 경제성과는 전년 대비 13단계 하락(8위 → 21위)하였고, 정부 효율성은 3단계 하락(37위 → 40위), 기업 효율성은 10단계 하락(48위 → 58위), 인프라는 2단계 하락(36위 → 38위)하였음.

1) European Structural and Investment Fund(ESIFs) : EU 집행위원회가 회원국 간 결속을 강화하고 역내 균형발전 및 고용 창출을 장려하기 위해 회원국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유럽 회원국들에 주로 지원됨.
 8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정치동향

2022년 4월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피데스(FIDESZ)의 승리로 안정적 국정운영 기반 강화

-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이끄는 집권 여당인 피데스(FIDESZ)가 54%를 득표하여 135석을 차지하고, 야권 연합이 34%를 득표하여 57석을 확보하였음. 나머지 7석은 6%를 득표한 극우정당(Our Homeland)에 돌아감으로써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의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여 안정적 국정운영 기반을 강화하였음.
- 야권의 패배는 내부의 당파 간 분열과 여당에 편파적인 언론 보도 등의 영향으로 분석되며, 2024년 10월로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집권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2010년 이후 장기 집권을 이어오고 있으며, 3권 분립의 정치체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핵심 권력은 오르반 총리와 그의 측근들에게 집중되어 있음.

오르반 총리의 극우 민족주의 성향과 독재 추구로 EU와 갈등이 지속

- 집권 여당은 2018년 총선 승리 이후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개헌을 단행하여 정부가 헌법재판소, 중앙은행, 언론의 독립성을 침해하였고 EU 회원국 간 난민 수용 할당을 거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EU의 이념과 정책에 역행하는 극우 민족주의적 성향으로 EU와 갈등을 빚고 있음.
- 2022년 9월 EU 집행위원회는 헝가리의 부패 만연, 이해충돌 방지 관련 문제 등을 포함한 법치주의 위반을 이유로 130억 유로의 EU 기금 지원을 중단하였음. 같은 해 12월 EU 기금 지원 재개에 합의하였으나, 금년 7월 EU가 헝가리의 법치주의 훼손을 재차 비난하면서 양 측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오르반 총리는 2010년 취임 이후 3권 분립 훼손, 언론 탄압 등으로 독재 권력을 강화

- 1998년 7월~2002년 5월 총리직을 역임한 뒤 2010년 5월 총선 승리로 다시 총리직에 오른 오르반 총리는 2014년, 2018년 및 2022년 총선에서 연달아 승리하면서 장기 집권을 도모하고 있으며,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 모든 국가 권력을 장악하려는 제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음.
- 오르반 총리는 2010년 총리직 취임 이후 검찰총장 임기를 6년에서 9년으로 늘리고 검찰총장과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에 자신의 측근을 임명하였으며, 2011년에는 헌법 개정을 통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정부가 해임할 수 있도록 하였음.
- 2018년 4월 총선 승리 이후에는 법무장관의 감독을 받는 행정법원을 설립하여 선거법 위반, 부정부패, 집회·시위 관련 사건을 사법부가 아닌 행정법원이 처리토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국내외 반발을 초래하였고, EU의 강한 압력으로 결국 행정법원 설립을 포기하였음.
- 또한, 2020년 3월에는 코로나19 방지법을 통해 총리에게 특별권한(의회 승인 없이 국가비상사태 연장 등)을 부여하고 정부의 언론 통제를 강화하는 등 방역을 이유로 총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여 대내외적인 비난을 받았으며, 결국 의회는 동년 6월에 동 법의 폐지를 의결하였음.

사회동향

극우 민족주의 득세로 난민을 중심으로 하는 외국인 및 소수민족에 대한 혐오 증가

- 헝가리는 게르만 민족 또는 슬라브 민족으로 이루어진 주변국들과 달리 마자르 민족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제국 치하에서 민족주의 의식이 강하게 형성되었음. 제1차 세계대전으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해체되면서 헝가리는 공화국으로 분리 독립하였고 이 과정에서 민족주의 성향이 더욱 강해져 EU 역내에서 외국인 및 소수민족에 대한 적대감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임.
- 이러한 민족주의 성향은 오르반 총리 집권 이후 극우 민족주의가 득세하면서 더욱 강해졌으며, 시리아 내전 이후 유럽으로 유입된 중동 난민에 대한 혐오감과 적대감이 높아 EU 차원의 난민 수용 정책을 거부하고 국경을 폐쇄하는 등 EU의 난민 정책을 거부하면서 EU와 갈등을 빚었음.

시민사회의 취약성과 정부 여당의 탄압으로 비정부기구(NGO) 들의 활동이 미약

- 헝가리의 시민사회는 서유럽에 비해 매우 빈약한 수준으로, 사회단체들은 자금 부족과 시민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음. 현재 헝가리 납세자들은 개인 소득의 1% 정도를 사회단체나 자선조직에 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대부분은 보건, 문화, 지역사회 자선 등의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정치 및 사회 분야는 미미함.
- 헝가리 정부는 2010년 오르반 총리의 재집권 이후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는 NGO에 대하여 해외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외국 이익을 위해 매국 활동을 한다고 비난하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탄압하여 EU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음.
- 특히, NGO들 중에서도 정부 정책의 투명성 제고, 성소수자 및 여성의 인권 보호, 환경보전 등을 주장하며 헝가리 정부의 극우 보수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NGO들이 탄압의 주요 대상이었음.

정부의 언론 탄압 등으로 언론 자유도가 하락하면서 EU 역내에서 최하위 수준

- 오르반 총리의 언론 탄압으로 헝가리는 국경없는기자회(RSF)가 2023년 5월 발표한 "2023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조사대상 180개국 중 62.96점(0에 가까울수록 언론자유도가 낮음)으로 72위를 기록, 전년 대비 13계단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U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임. 이는 니제르(61위), 라이베리아(66위), 레소토(67위), 토고(70위) 등 아프리카 빈국들보다도 낮은 수준임.
- 오르반 총리 재집권(2010년) 이후 동 지수에서 헝가리의 순위는 2013년 56위를 기록한 것이 최고이며 이후 계속 하락(2018년 73위, 2020년 89위, 2021년 92위)하다가 최근 상승세(2022년 85위)이나 여전히 최고점 대비 낮은 수준임.

국제관계

오르반 총리의 우파 민족주의 정책에 따른 시민의 권리 침해, 소수자에 대한 차별, 난민 수용 거부 등으로 EU와 마찰이 심화

- 헝가리는 1999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하였고, 2004년 EU에 가입하여 이들 두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주변국들과 국제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 그러나 2010년 오르반 총리의 재집권 이후 시리아 난민을 막기 위한 국경 폐쇄와 EU의 회원국별 난민 할당 수용정책에 반대하고 성소수자 및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과 박해 등 극우 민족주의 성향 정책 추진으로 EU와 갈등이 심화되었음.
- 2022년 9월에는 EU 집행위원회가 헝가리의 법치주의 훼손을 이유로 EU 기금 지원을 보류하였고 금년 7월에도 보고서를 통해 헝가리의 법치주의 및 민주주의 가치 회복을 촉구하였음.

주변국인 루마니아 및 슬로바키아와 민족 문제 등으로 갈등이 지속

- 인접국들 중 루마니아와는 트란실바니아(Transylvania) 지방에 거주하는 약 120만 명의 헝가리계 주민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였고, 슬로바키아와는 과거의 영토 할양과 슬로바키아 내에 거주하고 있는 헝가리계 주민 문제 등으로 불화와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해체 과정에서 오스트리아의 일부였던 보헤미아 및 모라비아와 헝가리의 일부였던 슬로바키아가 통합되어 체코슬로바키아로 독립하면서 동 지역에 거주하던 헝가리 주민들이 슬로바키아로 귀속된 것이 현재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간 갈등의 원인임.
- 다만,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모두 폴란드, 체코와 함께 1991년 지역 협의체인 비셰그라드(Visegrad) 그룹을 결성하여 역내 협력을 도모하면서 관계가 호전되었으나, 오르반 총리의 극우 민족주의적인 발언 등으로 인해 외교관계 경색이 종종 발생하고 있음.

EU 및 NATO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중국과 관계를 강화

- 헝가리는 EU 및 NATO 회원국이면서도 서방과 적대 관계인 러시아 및 중국과 정치·경제적 우호관계를 강화하고 있어 향후 EU 등 서방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오르반 총리는 2014년 크림반도 침공으로 촉발된 EU의 대 러시아 제재에 반대하였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러시아를 두둔하는 등 서방의 반감을 샀음. 최근에는 러시아, 튀르키예, 카타르가 참여하는 흑해곡물협정을 중재하는 등 러시아와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는 모습임.
- 중국과는 2015년 '신(新)실크로드 협정'을 체결하고 발칸 반도를 관통하는 350km의 고속철 사업(재원은 18.5억 달러의 중국차관으로 20년 만기 및 연이율 2.5%)을 진행 중이며, 이는 중국 일대일로 사업의 첫 번째 EU 역내 프로젝트임. 이외에도 중국산 코로나19 백신을 헝가리 소재 공장에서 생산하고, 중국 푸단대학교의 분교를 수도인 부다페스트에 설치하는 등 친중국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음.

외채상환태도

2013년 IMF 대기성 차관을 조기 상환하는 등 외채상환태도는 양호

- 헝가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재정 악화로 외채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IMF로부터 2년 간 157억 달러의 구제 금융을 지원받았음. 2011년 말에 IMF 앞 추가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지원조건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경기 회복 및 재정건전성 개선 등으로 추가 지원을 받지 않았음.
- 2013년 8월에는 IMF 대기성차관 잔액 28.5억 달러를 전액 조기 상환하였고, 현재까지 이자 연체 등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 외채관리능력 및 외채상황태도가 양호한 편임.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미평가 (2016.06)	4등급(2016.01)
Moody's	Baa2 (2021.09)	Baa3 (2020.09)
Fitch	BBB (2023.06)	BBB (2022.07)

국제신용평가3사는 헝가리에 대해 투자적격 등급 부여

- Moody's, Fitch 등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헝가리에 대해 모두 투자적격 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나 투자적격 등급 범위에서는 최하위 수준임.
- 한편, OECD는 헝가리에 대해 2016년 1월 4등급을 부여한 이후 OECD 회원국(1996년 가입) 및 고소득 국가를 이유로 국별 신용도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음.

- 헝가리는 EU 회원국으로 EU 역내의 상품 및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한 시장 확보, 유럽 중앙부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이용한 적극적인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제조업 기반의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형성하였음. 2022년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하며 4.9% 성장하였으나, 금년에는 금리 상승,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국내수요가 위축되어 경제성장률이 0.5%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 2022년 4월 총선에서 오르반 총리가 이끄는 집권 여당인 FIDESZ가 54%의 득표율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유지하고 있으나, 극우 민족주의 성향의 오르반 총리가 독재 권력을 강화하며 사법부 독립성 훼손, 언론 탄압 등을 지속하면서 대내외적 반발이 지속되고 있음.
- 헝가리는 OECD, EU 및 NATO 회원국으로서 서방과 협력 관계이나, 오르반 총리의 배타적인 민족주의 정책, 친러시아 및 친중국 정책 기조 등으로 EU 및 서방과 마찰을 빚고 있음.
- EU 회원국으로서 재정위기 발생 시 EU 차원의 재정지원이 가능하나, 최근 외환보유액이 월평균수입액의 3개월분에 미달하고 2022년 말 D.S.R.도 74.0% 수준으로 단기외채상환위험이 높은 편임.